

보도시점 2026. 7. 16.(목) 조간
2026. 7. 15.(수) 12:00 배포

2025. 7. 15.(수)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 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금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 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❷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❸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073)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책임자	본부장	손홍범 (02-3415-6905)
		담당자	부장	박영식 (02-3415-6930)



□ 개 요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창업역량 향상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농촌은 3명 이상)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 I	임파워먼트 II
참여기간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 I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육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2026.上	91개	1,012명